

# 육군사관학교 인솔 안내서



육 군 박 물 관



## 육군사관학교 역사

- 1946년 05월 01일 국방경기대사관학교 개교
- 1946년 06월 16일 조선경비대사관학교로 개칭
- 1948년 09월 05일 육군사관학교로 개칭
- 1949년 07월 15일 생도 1기(육사 10기) 입교
- 1950년 06월 10일 생도 2기(4년제 정규 사관학교) 입교
- 1950년 06월 25일 6·25 전쟁 발발, 생도 참전(생도 1, 2기)
- 1950년 07월 08일 임시 휴교
- 1951년 10월 31일 진해에서 재개교, 4년제 교육 시작
- 1951년 10월 31일 교훈 '智·人·勇' 제정
- 1954년 06월 21일 태릉으로 복귀
- 1957년 03월 16일 별칭 '화랑대' 사용 시작
- 1958년 05월 31일 화랑연병장 준공
- 1971년 12월 20일 생도 생활관 신축 및 총무관 준공
- 1980년 12월 15일 학교본부(이광로 건축가 설계) 준공
- 1982년 01월 12일 우당도서관(김종성 건축가 설계) 준공
- 1983년 03월 28일 박물관(김중업 건축가 설계) 준공
- 1985년 05월 01일 육군박물관 개관
- 1986년 03월 27일 육사기념관(김수근 건축가 설계) 준공
- 1992년 03월 01일 교과과정 개편(일반학, 군사학, 체육학으로 구분)
- 1992년 03월 01일 생도대 개편(16개 중대 → 8개 중대)
- 1998년 02월 28일 최초 여자사관생도(58기) 입학
- 2002년 03월 02일 최초 수탁생도(터기) 입학
- 2005년 08월 10일 2·3·4학년 해외전사적지 탐방 시작
- 2007년 11월 01일 국제사관학교 심포지엄(ISoDoMa)개최
- 2012년 04월 합동성 강화를 위한 3군 사관학교 통합교육 시행

## 육군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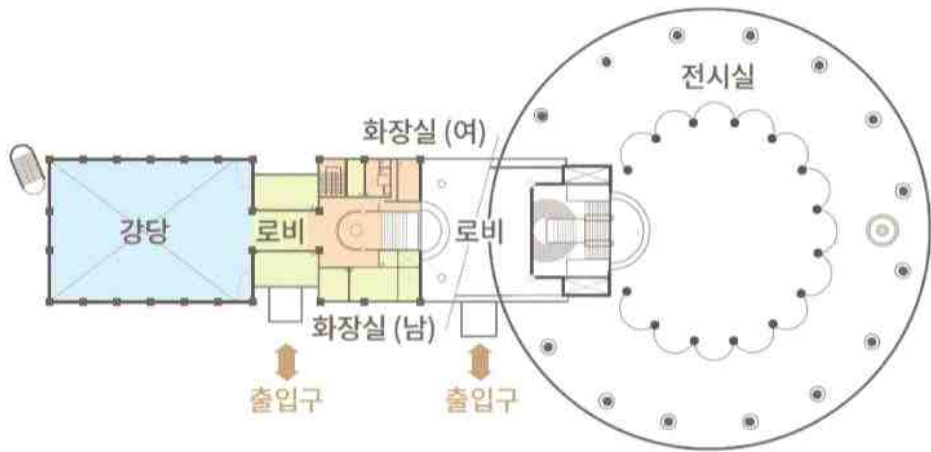


육군박물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군사전문박물관으로서 1956년 육군사관학교 내에 건립된 이래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각종 무기와 장비는 물론이고 서화류, 복식류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군사유물을 수집·전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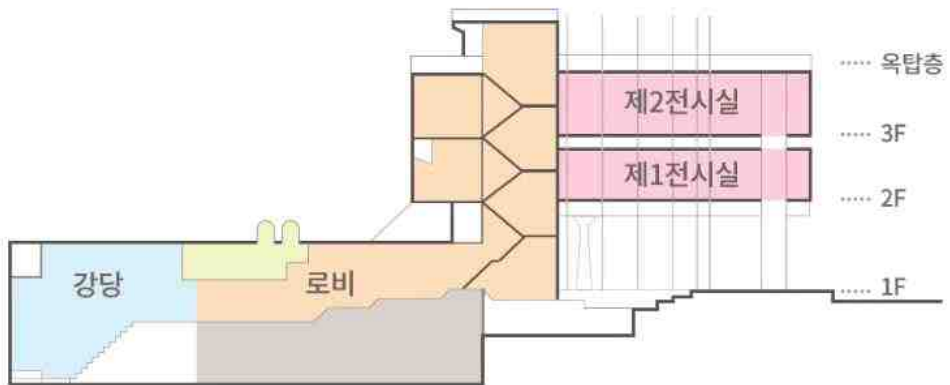
### 연 혁

- 1956. 10. 03. 육군사관학교 기념관으로 개관
- 1966. 10. 04. 육군사관학교 군사박물관으로 개칭
- 1967. 09. 10. 청헌당으로 이전 / 고대관으로 개관
- 1983. 03. 28. 박물관 신축공사 준공/육군박물관으로 개칭
- 1985. 05. 01. 육군박물관 개관
- 1996. 05. 01. 육사교훈탑 1층에 육사기념관 개관

# 박물관 도면



[ 박물관 평면도 ]



[ 박물관 측면도 ]

## < 제 1 전시실 소개 >

우리 민족은 한반도와 만주 일대를 주 무대로 국가를 세우고 발전하였다. 더불어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고조선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흥망성쇠의 역사를 이어왔다.

이때 전쟁은 역사의 변천과정에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고, 상대적으로 우수한 무기의 보유 유무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 하였다.

선사시대 생활도구에서 시작된 무기는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었으며, 그 용도도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나무·돌·청동·철 등 무기 재질에 변화가 있었으며, 주력무기의 중점이 칼·창·활 등 일반무기에서 총통·화포 등 화약무기로 변화하였다.

제 1 전시실에서는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민족이 사용하였던 군사(軍事) 관련 유물들을 전시하였다. 전장에서 사용했던 도검·궁시·화약무기 등의 무기와 군사장비 그리고 전장의 기록이 남겨져 있는 전쟁기록화·전적 등을 통해 당시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 제 1 전시실 주요유물



### 박정희 前대통령 의전용 세단(朴正熙前大統領儀典세단)

길이 6.2m 너비 2.03m, 높이 1.46m, 무게 3.2t

등록문화재 제398호, 1968년

박정희 前대통령이 사용했던 '캐딜락 프리트우드 75세단'은 미국 GM사에서 1968년에 제작한 것이다. 이 차량은 고속도로 시대가 개막되던 1970년부터 1979년 서거 때까지 사용된 국민용 의전 차량으로 사용되었다. 박대통령 서거 직후 육군본부에서 관리되다가 1985년 7월 22일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으로 이관되어 전시되고 있다.

이 차량은 2008년 8월 대통령 공식차량으로서의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어 '근대 등록문화재 제398호'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차량의 상태가 심하게 노후한 상태였으며, M&M(주) 최철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09년 4월부터 2010년 2월 까지 약 10개월 간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들여 외관에서부터 엔진 등 내부기관까지 완전히 복원하게 되었다. 이에 현재 구동이 가능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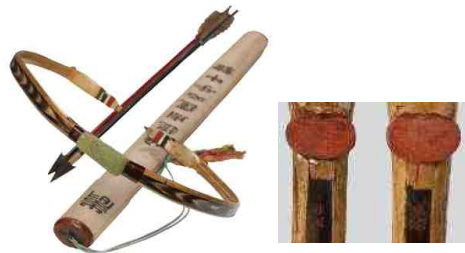
### 화차와 신기전(火車와 神機箭)

화차 : 길이 231cm, 높이 156cm

신기전 : 길이 110cm 내외

1451년, 문종화차(김연수 복원)

『국조오례의서례』에 나오는 화차도면을 갖고 복원한 화차와 신기전이다. 화차에 신기전 100개를 꽂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로켓발사틀인 신기전기를 장치하여 사용한 위력 있는 무기였다.



### 호미명 각궁(虎尾銘角弓)

활 : 길이 127cm, 전통 : 길이 90cm

중요민속문화재 제35호, 19세기

고종황제가 사용하던 활이다. 장기흥이 제작한 것으로, 호랑이 꼬리무늬가 있는 물소 뿔을 사용하였다. 양 끝에 붉은 글씨로 '호미(虎尾)'와 '주연(珠淵)'이 음각되어 있다. 고종황제의 아호(雅號)인 '주연'이 쓰여 있어, 활의 사용자가 고종황제임을 밝혀주고 있다.



**세총통(細銃筒)**

길이 13.9cm, 구경 0.9cm

보물 제854호, 1473년

조선 세종 19년(1437년)에 만들어진 소형 화기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총통이다. 불씨를 손으로 심지에 점화하여 발사하는 지화식 화기로, 흙자[집게]로 총통을 집어 발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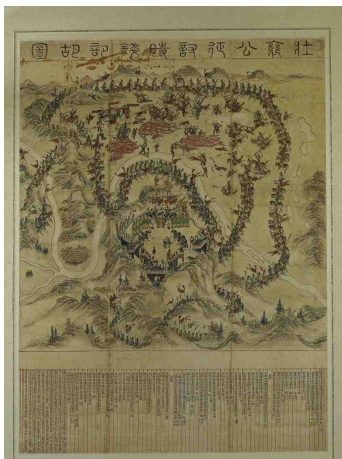


**불랑기 자포(佛朗機子砲)**

길이 43.5cm, 지름 9.3cm, 무게 46kg

보물 제861-1호, 1563년

불랑기포는 모포에 자포를 끼워 발사하는 형태의 대포이다. 이 자포는 명종때 제작된 것으로 규모가 가장 큰 1호 자포이다.



**장양공정토시전부호도(莊襄公征討時錢部胡圖)**

가로 101cm, 세로 135cm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04호, 1845년

조선 중기의 무신 장양공 이일이 여진족의 시전부락을 정벌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부산진순절도(釜山鎮殉節圖)**

가로 96cm, 세로 145cm

보물 제391호, 1760년

임진왜란 개전일인 1592년 4월 14일 부산진에 침입한 왜군에 맞서 부산첨사 정발을 비롯한 장병이 최후까지 항전하는 광경을 그린 그림이다. 숙종 35년(1709)에 처음 그려진 것을 영조 36년(1760) 변박이 다시 그렸다.



**동래부순절도(東萊府殉節圖)**

가로 96cm, 세로 145cm

보물 제392호, 1760년

임진왜란 개전 2일차인 1592년 4월 15일 동래부에 침입한 왜군에 맞서 동래부사 송상헌을 비롯한 군민이 최후까지 항전하는 광경을 그린 그림이다. 숙종 35년(1709)에 처음 그려진 것을 영조 36년(1760) 번박이 다시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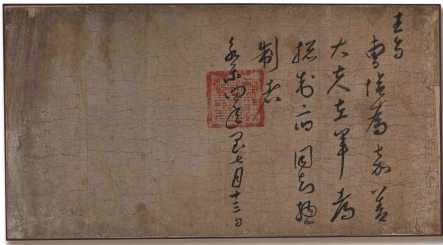


**수문장계회도(守門將契會圖)**

가로 65cm, 세로 137cm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03호, 1630년 전후

1630년을 전후 조선시대 종4품 관청인 수문관청에 소속된 수문장들의 계모임을 그린 계획도이다. 한강변을 배경으로 17세기 전반기에 제작된 현존하는 유일한 수문장청 계획도로 품직·이름·자·년·무과합격년도·본관·거주지 등과 부친의 품직과 이름까지 기록되어있다.



**조흡왕지(曹恰王旨)**

가로 73cm, 세로 40cm

보물 제1226호, 1406년

1406년 국왕이 조흡을 가선대부좌군도총제부동지총제로 임명하는 사령왕지이다. 왕지는 세종 말기부터 교지로 바뀌고, 찍히는 직인도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에서 '시명지보(施命之寶)'로 바뀌었다. 이 왕지를 통해 조선 초기 인사행정 제도 및 직제를 살필 수 있다.



**훈국신조군기도설(訓局新造軍器圖說) 左**

가로 22.7cm, 세로 30cm

1867년, 박종경 著

**훈국신조기계도설(訓局新造器械圖說) 右**

가로 22.9cm, 세로 30cm

1871년, 박종경 著

조선말기 훈련도감에서 편찬한 병서로 당시 새로 제조된 군사장비의 도면과 제원해설 등을 수록하였다.

## < 제 2 전시실 >

대한제국은 혼란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신식군대의 양성과 근대식 무기의 구입, 군제 개편 등 부국강병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일제의 을사·정미늑약에 의해 나라의 외교권이 박탈되고 군대가 해산되었다. 급기야 1910년 나라를 빼앗기는 어두운 역사를 맞이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우리 선조들은 의병과 독립군이 되어 한반도는 물론 만주 및 연해주 일대에서 일제를 상대로 무장투쟁을 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산하 광복군의 활동까지 이어진다.

광복 이후 조선경비대를 거친 대한민국 육군은 국군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특히, 육군은 6·25전쟁(1950~1953)과 베트남전쟁 파병(1964~1973)이라는 힘들고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면서 국가 방위의 중심군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제 2전시실은 이러한 백여 년의 우리 역사와 군의 여정을 되살펴보는 장소이다. 대한제국의 군대, 의병·독립군 및 광복군, 대한민국 육군이 전쟁에서 사용했던 무기와 장비 그리고 주요 문서들은 그 여정의 인도자가 되어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 제 2 전시실 주요유물



**고종 대원수 상복(高宗大元帥尙服)**  
 기장 78cm, 소매길이 57cm  
 1899년~1904년

1899년 원수부(元帥府)가 설치된 후 1904년 폐지될 때까지 고종 황제가 대원수(大元帥)로서 평상시 입었던 군복이다. 깃에 5개의 별이 있는 의령장과 소매에 열 한 줄의 인자(人字)형이 있는 수장이 대원수의 계급을 표시한다.



**이도재 예복(李道宰禮服)**  
 상의 73cm, 하의 103cm  
 등록문화재 제543호  
 1897년~1902년

대한제국 육군보병부장을 역임한 이도재가 입었던 예복이다. 부장은 대한제국 군대에서 정2품에 해당하였으며, 깃에 3개의 별이 있는 의령장과 소매에 8줄의 인자(人字)형이 있는 수장이 부장의 계급을 표시한다.



**한국광복군 군복(韓國光復軍軍服)**  
 상의 62cm, 하의 94cm  
 등록문화재 제460호, 1945년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45년 2월 19일 '군인제복 양식 제정안'을 제정, 국무회의의 의견을 거쳐 공포·시행 하였다. 이 군복은 광복군 예비대 군복으로 상·하의의 한 벌로 구성되어 있고, '군인제복 양식 제정안'에 의거하여 제작된 현재까지 국내 유일의 광복군 군복이다.



**대한민국 육군기(大韓民國陸軍旗)**  
 가로 127cm, 세로 98.5cm  
 등록문화재 제461호, 1948년

대한민국 육군기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육군기이다. 1946년 1월 국방경비대가 창설되면서 군복은 비록 일본군 군복을 착용하였으나, 모표만은 우리 것을 제정·부착하였다. 이 때 만들어진 모표가 육군기에 인쇄되어 있다.



**홍천 말고개 전투도(洪川馬峴戰鬪圖)**  
가로 300cm, 세로 200cm  
1984년

6·25전쟁 개전초기인 1950년 6월 28일 북한군 제7사단이 홍천을 점령할 목적으로 T-34 전차 및 SU-76 자주포 10여대를 투입하였다. 이에 홍천 말고개에서 아군 제 6사단 제2연대 소속 김학두 일등중사(오늘날 하사) 및 특공대의 활약으로 북한군을 공격하여 승리함으로써 적의 홍천 진입을 지연시켰다. 이 홍천 말고개 전투도는 당시 상황을 그린 민족기록화이다.



**생도전사자 유품(生徒戰死者遺品)**  
철 모 : 둘레 77cm, 높이 15cm, 지름 28cm  
수 통 : 높이 18cm, 지름 13cm  
대 검 : 길이 29cm  
전투화 : 길이 26cm  
M1총탄 : 길이 6.3cm

1950년  
1950년 6월 26일 부평리(현재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전투에서 전사한 사관생도 유해 2구와 함께 발굴된 유품들이다. 2002년 4월 국군유해발굴단에 의해 유해들은 완전한 상태로 발굴되었고, 철모와 수통, 대검, 신발, M1총탄 등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베트남전 한국군 중대 전술기지**  
(越南戰韓國軍中隊戰術障地)  
가로 200cm, 세로 150cm  
197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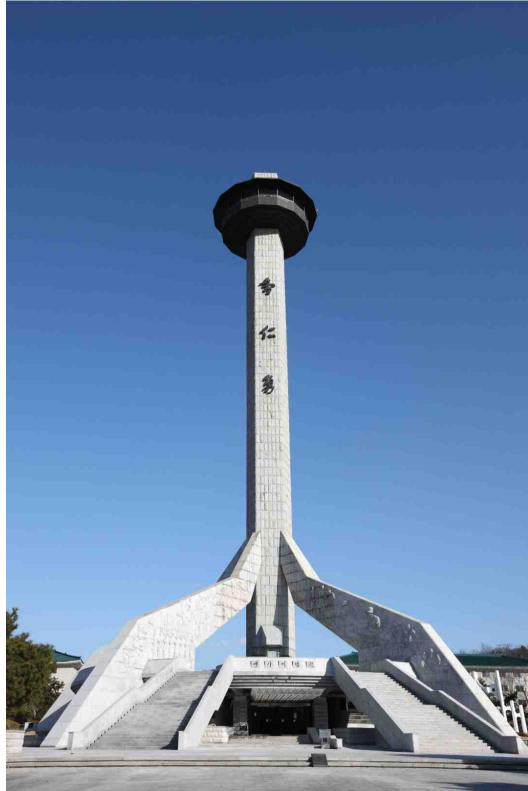
베트남전 당시 주월한국군사령부에서 제작한 한국군 중대 전술기지이다. 각종 시설 및 진지의 석고 모형으로 최초 제작 시에는 구조물에 조명이 장착되어 있었다. 베트남전 종전이후 현지에서 한국으로 이송되었고, 육군박물관에 기증된 상태이다.



**목판인쇄기(木版印刷機)**  
가로 14cm, 세로 9cm  
1970년대

베트남전쟁 당시 파병간 국군에 대한 심리전을 목적으로 제작된 북한의 목판인쇄기이다. 북한은 베트남을 돕기 위해 국군에 대한 심리전을 펼쳤고, 목판인쇄기를 이용하여 심리전단(삐라)을 만들어 살포하였다.

## 육사교훈탑(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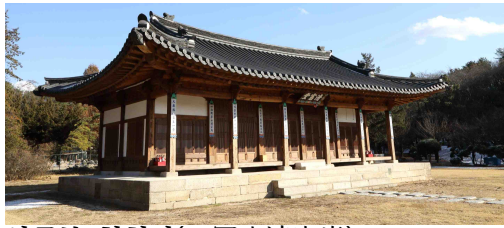
육사 교훈탑은 1986년 3월에 완공하였으며, 육사의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하고 미래상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육사의 전통과 단결을 나타내고 졸업생 각기의 공로를 기리는 기념탑으로 육사를 상징하는 64m 높이로 준공되었다. 5각 기둥 전면부에는 학교의 교훈인 智·仁·勇의 글귀가 양각되어 있으며, 그 휘호는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하사한 것이다. ‘智’는 장교로서의 지혜로움을, ‘仁’은 리더로서의 어진 품성을, ‘勇’은 군인으로서의 용기와 용맹성을 의미한다. 탑신 하부는 육군의 별을 상징하는 5개의 거대 지주가 탑신 전체를 구조적으로 받들고 있다. 기념관 입구의 좌우측 지주의 안쪽 2개 면에는 부조를 조각되어져있다. 왼쪽 면에는 분열을 비롯한 생도생활을, 오른쪽 면에는 임관 후의 장교생활을 새김으로써 과거, 현재, 미래의 군인상을 통해 사관생도들이 나아가야 할 군인의 길을 나타내었다.

## 야외전시장



야외무기 전시장에는 조선시대 삼군부 청헌당과 연령군 이훤 신도비 등의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와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대포, 전차, 항공기와 지대공 유도탄 등이 전시되어 있다.

## 야외전시장 주요유물



**삼군부 청헌당(三軍府淸憲堂)**

앞면 5칸, 옆면 3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6호, 1868년

청헌당은 조선후기 삼군부 청사의 일부로서 원래 광화문 남쪽 현 정부종합청사자리에 주당(主堂)인 총무당을 중심으로 좌우에 덕의당(우측)과 같이 자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총무당은 일제 강점기에 이전되었고, 덕의당은 멸실되었다. 청헌당은 1967년 정부종합청사가 세워질 때 육사로 이전되었다.



**연령군 이훤 신도비(延齡君李田神道碑)**

높이 383cm, 너비 153cm,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43호, 1720년

연령군 이훤은 조선 제19대 숙종의 여섯째아들로 태어나 오위도총부(五衛都總府)의 도총관을 지냈으며 21세에 요절하였다. 비의 원래 소재지는 영등포구 대방초등학교 교정이었으나, 1940년 당시 경성지구 구역정리로 묘역은 충남 예산군 덕산으로 옮겨졌다. 그 뒤 비석만 남아 있다가 1967년 8월 육사로 옮겨졌다.



**안케패스 전승 기념비(戰勝記念碑)**

높이 3.5m, 둘레 3.36m

1972년

안케패스지역은 베트남과 캄보디아 국경선 사이 보급로인 19번 도로에 있던 전략적 중요 지역이다. 이곳에 맹호부대 제1기갑연대 제1중대가 638고지 일대에 전술기지를 편성하고 안케패스지역 경계임무를 수행하였다. 월맹군 제3사단 제12연대 특공부대가 1972년 4월 11일 기습공격을 하였고, 대한민국군은 치열한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이 기념비는 현지 나무를 조각하여 당시의 승리를 기념한 것이다.



**T-34 전차(戰車)**

길이 6.1m, 폭 3m, 높이 2.7m, 중량 32t

1950년~1953년

소련이 1939년에 개발한 것으로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의 주력무기였다. 북한이 도입한 T-34 전차는 85mm 포를 탑재한 T-34/85형이다. 개전 초기 전차한 대 없었던 국군은 T-34전차의 공격에 가장 큰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M4A3 전차(戰車)**

길이 5.89m, 폭 2.62m, 높이 2.74m, 중량 30t  
1950년~1953년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맹활약한 미국의 중전차(中戰車)로써 '셔먼'이라고도 한다. 6·25전쟁 시 마산전투에 최초로 투입되었고, 연합군의 대표 전차로 사용되었다. 포탑의 선회가 빨라 적 전차에 대한 신속한 사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륙양용장갑차(水陸兩用裝甲車)**

길이 8.07m, 높이 3.2m, 폭 3.81m, 중량 17.4t  
1950년~195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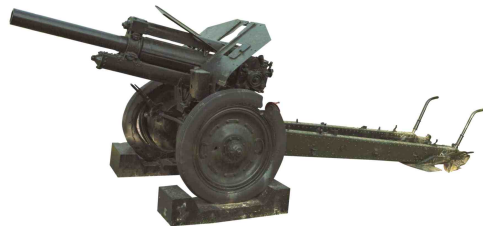
6·25전쟁 때 최초로 투입된 수륙양용장갑차로 인천상륙작전때 사용된 장갑차이다. 서울수복작전등에도 사용되었으며, 수륙양용이라는 특성으로 상륙작전 시 해양에서 내륙으로 인원 및 장비를 수송하고 기타 기계화 작전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였다.



**25파운드 곡사포(曲射砲)**

전장 4.6m, 포신 2.47m, 전폭 2.13m,  
전고 1.16m, 구경 87.6mm, 무게 1.64t  
1950년~1953년

1937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이 사용했던 곡사포이다. 더불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국가 역시 사용하였다. 이 곡사포는 뉴질랜드 군이 6·25 당시 참전하여 사용하였으며, 후에 육군 박물관에 기증되었다.



**122mm M1938 곡사포(曲射砲)**

전장 6.35m, 포신 2.8m 전폭 2.58m,  
전고 2.84m, 구경 122mm, 무게 2.4t  
1950년~1953년

1938년 소련에서 개발한 견인포로써, 6·25전쟁 당시 북한군 보병사단급에서 운용했던 화포이다. 대한민국의 155mm 야포와 대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군 사단포의 표준형으로서 포구제동기(砲口制動機)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곡사포는 1950년 9월 육군 수도사단이 '안강·기계전투'에서 노획한 것이다.